

201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언어)

정답 및 해설

[정답]

1.③ 2.③ 3.④ 4.② 5.① 6.④ 7.③ 8.⑤ 9.⑤ 10.⑤
11.③ 12.② 13.① 14.① 15.④ 16.③ 17.① 18.④ 19.④ 20.④
21.③ 22.④ 23.① 24.③ 25.③ 26.⑤ 27.⑤ 28.② 29.③ 30.④
31.② 32.⑤ 33.③ 34.⑤ 35.① 36.② 37.② 38.① 39.① 40.④
41.⑤ 42.② 43.⑤ 44.① 45.② 46.② 47.⑤ 48.① 49.② 50.④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여름에 마시면 좋은 한방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줄줄 흐르는 땀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로, 기운 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여름에는, 오미자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갈증 해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폐의 기운도 북돋워 주고 혈액 순환도 원활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음까지 쫓아 주니, 피로해지기 쉬운 여름에 더없이 좋습니다.

오미자차는 오미자를 가루 내어 물에 타거나, 말려 두었던 오미자에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은근히 달인 뒤,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만듭니다. 또, 늦가을에 생오미자와 설탕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 원액을 만들어 두었다가, 여름철에 원액 한 스푼을 냉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너무 지쳤을 때는 ‘생맥산’ 음료도 좋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맥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맥산은 ‘맥이 살아난다’, 즉 맥이 빠졌을 때 먹으면 맥에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생맥산 음료는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달여서 만듭니다. 물 2L에 인삼 10g, 오미자 10g, 맥문동 20g을 넣고 물이 절반 정도로 줄 때까지 약한 불로 달이면 되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이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 자기 체질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학생은 여름에 마시면 좋은 한방차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며 오미자차를 소개하고 있다. 오미자차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①), 그리고 어떻게 오미자차

를 만들고(②) 어떻게 마시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생맥산’ 음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생맥산’이란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④), 생맥산 음료를 어떻게 만들며(⑤) 달여 마실 때의 유의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미자차를 마실 때의 유의점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정답] ③

2. 이번에는 요트에 대한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요트에는 그림 (가)처럼, ‘메인세일’, ‘제네이커’, ‘지브세일’, 이렇게 3개의 돛이 달려 있습니다. 요트가 항해 중일 때는 이 중 2개의 돛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배 가운데 있는 ‘메인세일’은 늘 펼쳐 놓고,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펼쳐서 바람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거죠. 항상 펼쳐 놓는 ‘메인세일’은 순풍을 ‘제네이커’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나, 역풍의 흐름을 원활히 해 줍니다.

자, 이제 그림 (나)와 (다)를 봅시다. 먼저, 그림 (나)처럼 요트의 뒤쪽에서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를 펼칩니다. 그러면 ‘제네이커’를 때리는 바람의 힘으로 요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풍이 불 때, 요트는 어떻게 전진할까요? 그림 (다)처럼 비스듬히 불어오는 역풍을 만나면 ‘지브세일’을 펼쳐 바람의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맞춥니다. 그러면 ‘지브세일’의 뒷면으로 들어온 바람이 ‘지브세일’을 앞쪽으로 부풀게 합니다. 돛이 앞쪽으로 볼록해지면 앞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 돛 앞쪽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앞으로 볼록해진 돛의 뒤쪽은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앞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려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이때 돛의 앞뒤 기압차에 의해 기압이 높은 뒤쪽에서 기압이 낮은 앞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 힘에 의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단, 바람이 앞쪽 측면이 아니라 정면에서 불어오면, 요트는 방향을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 형태로 항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역풍이 불어도 요트가 전진하는 원리는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의도 같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윗면이 아랫면보다 넓은 유선형 모양인데, 날개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기압차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2.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일반적으로 요트는 ‘메인세일’, ‘제네이커’, ‘지브세일’ 등 3개의 돛이 있으며 이 중 2개의 돛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항해 중 ‘메인세일’은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늘 펼쳐져 있으며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다. 특히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 돛의 앞쪽이 볼록해지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압이 낮아지는데, 돛의 뒤쪽은 바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기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발생하는 기압차에 의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⑤ 대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풍이 불어도 요트가 전진하는 원리가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 유사하다고 했다.

3.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제가 다음 주 수업에서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내용 준비는 웬만큼 했는데, 발표하려니 걱정이 돼요.

선생님 : 내용이 준비되었는데 뭐가 걱정이지? 그냥 준비한 것을 발표하면 되잖아.

학생 : 그게, 발표만 하려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 : 네가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구나.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너하고 비슷했단다. 그래서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발표할지 미리 순서를 짜 본 적이 있어.

학생 : 저도 그렇게 해 봤는데, 여전히 떨리던걸요.

선생님 : 그래서 선생님은 친한 친구들 앞에서 발표 연습도 몇 번 해 봤어.

학생 : 저도 친구들 앞에서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뿐이었어요.

선생님 : 그래? 그럼 왜 그럴까? 혹시 발표할 내용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학생 : 자신감이요?

선생님 : 그래. 발표를 하려면 우선 내용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단다. 발표 연습도 해야겠지만,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자신감이 생길 거야. 뭐라고 할까? ‘이 내용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 내용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선생님이라도 떨릴 거야.

학생 : 발표할 내용을 잘 알면 정말 발표를 잘하게 될까요?

선생님 : 물론이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진 발표 기대할게.

3. 비판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학생은 수업 발표를 앞에 두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이 발표 내용의 순서를 미리 짜 보라고 하자(③), 학생은 그래도 여전히 떨린다고 했다. 이에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해 보라고 했는데(⑤) 학생은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②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발표자가 숙지한 것은

아니다.

[4~5] 이번에는 방송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이 시간에는 다문화 정책 전문가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교수님, 먼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주시죠.

김 교수 :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7년에는 100만 명, 2009년에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도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외국인들이 도시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굳이 도시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셨나요?

김 교수 : 그건 전체 외국인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뿐 아니라 국적,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외국인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청취자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 네, 첫 번째로 목련 산업 단지 주변의 목련동인데요. 이 지역은 산업 단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터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목련동 지역은 주요 정책인 다문화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 정비에 치우쳐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럼,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 : 아, 그건 아닙니다. 시행된 정책의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장미동의 저렴한 주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곳입니다. 장미동 지역은 최근 다문화 센터가 문을 열어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교수 : 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등을 들 수 있겠고,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도시 지역에 위치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연구를 한 ‘김 교수’가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산업 단지 주변의 목련동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지역은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며, 도시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도 개선한 곳이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과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에 김 교수는 시급하게 ‘다문화 센터 운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장미동의 저렴한 주택 지역인데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물가가 싸기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다국적으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최근 다문화 센터가 문을 열어 지역 사회의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도 문제점이 있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②

5. 비판적 사고(진행자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진행자의 역할을 묻고 있다. 진행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왜 김 교수가 도시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지도 물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하며 청취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다(ㄱ). 또한 김 교수가 목련동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역 사회의 소통을 위한 정책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하자, 진행자는 그러면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인지 묻으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김 교수는 진행자의 질문에 착실하게 대답하고 있으며 화제를 의도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ㄷ). 또한 진행자는 김 교수를 소개 한 후 바로 외국인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며 본격적인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ㄹ).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연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십자말풀이로부터 떠올린 내용에 착안하여 ‘책 읽기’에 대한 편지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㉞의 내용은 편지 글의 앞내용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고 있지만,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는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 ㉞에서 말하는 ‘책 한 권에서 하루에 읽는 일정한 분량’이 ‘글자 수가 같은’의 내용에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단어’가 ‘책 한 권’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므로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로부터는 (다음에 읽을 책으로) ‘분량이 유사한 여러 권의 책을 떠올려 본다.’ 정도의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쉬운 단어’는 ‘이해하기 쉬운 책’에 대응되며, ② ‘풀어낸 단어’는 ‘이미 읽은 책’에, ‘연결된 단어’는 ‘관련이 있는 책’에 대응된다. ③ ‘잘 모르는 것’은 ‘책의 어려운 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자료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 보는 방법’에 대응된다. ⑤ ‘십자말풀이를 다 끝내고 얻는 뿌듯함’은 ‘읽어야 할 책을 모두 읽었을 때의 성취감’에 대응된다.

7. 비판적 사고 (자료의 활용 및 개요의 수정)

정답해설 : ‘2-가’의 내용은 ‘1-가’의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한 극복 방안이므로 ‘교육과 홍보로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자료 B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이 장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의 자료는 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정보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습지 보전이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료 C를 활용해야 도출되는 내용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다’에 대응되는 장애 요인으로 ‘습지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농작물 피해를 언급하며 습지 보전에 반대하는 인터뷰 자료 A를 활용할 수 있다. ② ‘1-가’에 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 주는 자료 B와 습지 보전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자료 A를 활용할 수 있다. ④ C는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습지 보전 정책을 편 자료이므로 ‘2-나’에 활용할 수 있다. ⑤ ‘2-다’는 ‘갈등의 조정 및 해소 노력’이므로 갈등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 A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 C를 활용할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글 쓰기 계획의 보완 및 수정)

정답해설 :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가 주제이므로 계획서는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㉞에서는 ‘매체 활용’에서 ‘취미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 소개 및 주소 연결’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취미 활동’으로 주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료 수집’에 ‘중고 물품 교환 사이트 목록’을 블로그에 추가하면 네티즌은 그 정보를 자료 수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내용 선정’에 ‘중고 물품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추가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견이다. ③ ‘중고 물품 교환을 위한 일일 시장 개설

제안'은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 방안의 하나이다. ④ 글의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 '동참 제안'을 추가하는 것은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란 주제를 강조하기에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비유법과 생략법의 활용'이라는 표현상의 조건과 '친구들과의 추억을 내용으로 담기'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시켜 졸업 앨범에 '친구들에게 남길 말'을 써야 한다. ⑤에서는 '나'를 '마른 장작'으로, '졸업'을 '흩어지는 구름'으로 비유하였고, 마지막 문장에서 '바란다' 정도의 서술어를 생략한 채 '아니길'로 끝내고 있다. 또한 '너희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이란 내용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④는 <보기>의 조건 중 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 ① '순대, 떡볶이를 함께 먹던 추억'이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얼굴'을 '보름달'로 비유하고 있다. ② '나'를 '농구대'로 비유하고 있다. ③ 2행에서 '~만들었으면'으로 끝을 내고 있다. 이는 생략법을 활용한 것이다. '나'를 '고구마'로 비유하기도 했다. ④ 2행의 끝에서 '잊지 말자'의 서술어를 생략했으며, 3행에서 '바란다'의 서술어 또한 생략했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마지막 문장에서 ㉠은 '~을 조사했더니, ~하였다.'가 와야 호응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탐구 계획도 정해 놓았습니다.'로 끝나고 있기에 ㉠은 '조사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조사하였고'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목이 '신청 동기와 사전 준비 정도'이다. 그러므로 ㉠과 같이 자신을 선발해 주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② 문단은 하나의 화제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은 잉카 문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언급하였고, 이는 다음 문단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기에 둘째 문단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매력은 '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이며,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림'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정해야 한다. ④ ㉠이 속한 문장 전체의 주어는 '저는'으로 생략되었다. 그러므로 '저는~소망입니다.'는 호응이 부자연스럽기에 '저는~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11. 어휘·어법 (어휘 사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문장에서 '불릴'은 배가 고플 아이들의 배를 채우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부르다2)의 사동형이 적절하게 사용된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불렀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불이다.'

(부르다1의 ㉔)의 피동형이다. ㉔ ㉕에서 ‘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부르다1의 ㉓)의 피동형이다. ㉖ ㉗에서 ‘불리는’은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부르다2)의 사동형이다. ㉘ ㉙에서 ‘불려야’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부르다1)의 사동형이다.

12. 어휘·어법 (정보 출처 표현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어미 ‘-을래’에는 정보의 출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㉓ 어미 ‘-대’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음’의 정보임을 알 수 있다. ㉕ 어미 ‘-네’에서 화자가 ‘직접 경험’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㉖ 어미 ‘-을걸’에서 ‘추측’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㉘ 어미 ‘-겠-’에서 ‘추측’하고 있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13-14] 인문, ‘추론의 여러 유형과 개념’

지문해설 : 이미 제시된 명제를 전제로 다른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사고 과정인 추론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타당한 추론’, ‘개연성이 높은 추론’, ‘건전한 추론’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타당한 추론’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이며,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추론이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다. 그리고 ‘건전한 추론’은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한 추론이다. 논리학에서는 건전하지 않은 추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데, 이는 논리학이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 전제와 결론의 참·거짓 여부로 살펴본 추론의 유형과 개념

13. 사실적 사고(중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을 ‘타당한 추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당한 추론으로 전제가 실제로 참이기까지 한 것은 ‘건전한 추론’이다. 반면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나 참일 가능성도 높은 추론도 있는데, 이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정답] ㉓

1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남자는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다.’를 전제로 삼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농구 선수들은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추론에 대해 여자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서 남자가 한 추론의 결론이 거짓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건전한 추론’은 결론이 참이어서 타당한 추론 이면서 전제도 실제로 참인 추론이다. 따라서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 아니며 그에 따라 ‘건전한 추론’도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추론이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다.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론의 개연성이 낮다. ③ 여자는 남자에게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결론이 참일 가능성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 추론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결론이 거짓인 추론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⑤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의 추론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18] 과학, ‘사막의 형성 요인’

지문해설 : 사막은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으로 나누어 사막의 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저위도의 사막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며, 중위도의 사막은 지형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라는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지형적 특성으로 형성된 대표적 사막은 미국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이며, 지형적 특성 외에 지리적 위치가 요인으로 작용해 형성된 사막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그런데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은 지각 변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호주 대륙의 사막들과 유사한 점이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은 호주 대륙이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제]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의 사막의 형성 요인과 특징

1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 해설 : 1문단을 보면 사막이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사막의 예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들고 있다.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해양과 차단되어 있으며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은 온대 사막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의 형성 요인이다. ⑤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적 특성 외에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

16. 추론적 사고(정보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 해설 : [A]를 보면, 가설은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결과를 통해 지지되었다. 여기서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은 <보기>의 ㄴ의 ‘기존 이론’에 해당하며,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결과’는 ㄱ의 ‘추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1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 해설 : 호주 대륙의 사막들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에 사막이 형성되었으므로 호주 대륙의 사막들이 저위도의 사막의 형성 요인인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18. 어휘·어법(사전적 의미의 파악)

정답 해설 : ㉔의 ‘서식’은 ‘동물이 깃들여 삶’을 의미한다. 그런데 ㉔에서는 ‘길러서 번식하게 함’이라고 그 의미를 풀어 놓았다. 이는 ‘양식(養殖)’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정답] ④

[19-22] 현대시

(가) 김춘수, ‘강우(降雨)’

작품해설 :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허전함과 슬픔을 그린 작품이다.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화자는 일상에서 아내를 찾는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곁에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아내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화자는 풀이 죽는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마음처럼 비가 내린다.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을 통해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나) 김종길, ‘성탄제’

작품해설 :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6연까지가 회상이고 나머지가 현재이다. 찾아들던 어린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눈 속에서 약을 구해 돌아온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시공을 뛰어넘어 서른 살이 다 된 화자의 이마에 느껴진다. 화자가 살아가는 현실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던 예전의 그 공간이 아니라 삭막한 도시이다. 그래서 화자는 더욱 더 붉은 산수유 열매 같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다) 이성복, '서해(西海)'

작품해설 :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가보지 않고 당신 계실 자리를 남겨 둔다고 배려해 줌으로써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화자는 당신이 있을 곳을 늘 마음 한쪽에 지니고 있다고 하여 그리움의 정서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주제] 그리운 이에 대한 배려와 안타까운 그리움

19.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넙치지지미 땀뻘한 냄새', 메아리로 돌아오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 어둠 속에 내리는 '비' 등의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이 사람'(아내)의 부재라는 화자의 현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로 서러움과 그리움을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파도의 움직임이라는 역동적인 감각으로 나타나 있다. [정답] ④

20.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가)에 부재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잘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나)에도 어렸을 때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빈자리를 느끼며 허전한 마음을 독백조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눈'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가)에는 아내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현재의 장면만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어린 시절 아팠던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⑤ (가)에서는 '비', (나)에서는 '붉은 산수유 열매'를 통해 시상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21. 추론적 사고(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화자는 아내가 곁에 있던 때 그랬던 것처럼 '옆구리 담피가 도졌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밥상은 사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다. 아내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자의 마음 상태가 평온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아내가 없기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다. ④ ㉔은 아내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서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을 의미한다. ⑤ ㉕에는 지금은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이 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는 ‘당신’에게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구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지만 그를 배려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애쓰는 마음을 나타낸 시구이다. **[정답] ④**

[23-27] 예술,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통찰’

지문해설 : 이 글은 회화적 재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미술사의 흐름과 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먼저 미술사의 흐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로부터 사실성을 강조한 인상주의자들, 그리고 본질이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 그리고 이를 계승한 입체주의까지 실재의 재현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비교 대조하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철학적 차원에서 고흐와 칸딘스키의 이론에 주목하여 회화적 재현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피카소가 던진 한 마디에 회화적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주제] 미술사와 철학적 차원에서의 회화적 재현에 대한 고찰

23. 추론적 사고(인물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화는 그녀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초상화가 앞으로 그녀를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피카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피카소가 회화적 재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4문단에서 입체주의는 존재,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했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4문단에서 스타인의 초상화가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즉 어느 한순간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스타인의 초상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④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 했던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다.

24.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세잔은 본질이나 실재를 담아내기 위해 대상을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렸으며 윤곽선을 그리고,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가)에 원근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윤곽선이 뚜렷한 그림은 (나)의 세잔의 그림이다. ②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가)이다. ④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의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다. (다)의 피카소는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 ⑤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 그림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며,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한 인상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5. 비판적 사고(관점의 적용 및 평가)

정답해설 : 고프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가지는 핵심은 ‘순수한 눈’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도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지각은 관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실성을 추구했으며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빛에 의해 같은 사물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고프리치와 굿맨은 인상주의자들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려 노력해도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프리치와 굿맨은 ‘순수한 눈’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고프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부정한다. ④ 고프리치와 굿맨은 ‘숨어 있는 실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고프리치와 굿맨에 따르면, 사실적인 그림이란 익숙한 그림이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26. 비판적 사고(근거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고프리치와 굿맨의 이론을 일컫는다. 이 두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관습과 문화, 배경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작품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전 지식이 나무를 그린 소묘 속 불분명한 연필 자국을 나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소 떼 그림에 있는 연필 자국을 소로 보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⑤가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고프리치와 굿맨이 말한 사실적인 그림이란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것이라 했다. ④ 선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27.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언어 내거나 얻어 가짐’의 의미를 가진 ‘획득(獲得)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습득(習得)’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체득(體得)’은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또는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취득(取得)’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의 의미를 ④ ‘터득(摠得)’은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8-31] 현대소설 - 임철우, ‘눈이 오면’

작품해설 : 이 소설은 탐색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 고향을 떠나 둘째 아들 가족과 서울에서 살게 된 어머니는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상 행동을 하며 치매 증세를 보이게 된다. 어머니는 남편의 산소가 있고, 큰아들이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자고 둘째 아들을 조른다. 결국 서술자인 둘째 아들(그)과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아가나, 고향은 물론 남편의 무덤조차 사라지고 만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작품은 병약한 노인을 통해 산업화 시대 현대인의 고향 상실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주제] 산업화 시대에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28.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서술자인 ‘그(찬우)’의 시각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갑자기 고향인 꼬두메를 찾게 된 배경과, 고향에 내려가면서 되돌아보는 자신의 삶, 그리고 꼬두메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찾으며 꼬두메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모두를 ‘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서술자는 과거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③ 과거를 되돌아보는 서술자의 내면은 결코 답답하지가 않으며 객관적이지도 않다. 마지막 장면에서 꼬두메의 의미를 생각하는 장면 또한 그렇다. ④ 보여주기 기법보다는 말하기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인물 간 대결 의식은 보이지 않으며 ‘그’의 내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이 작품은 여로(旅路) 구조를 택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서술자인 ‘그’는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에서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오늘 사표 쓴 일을 떠올리고, 과거 실업자 신세로 지내며 끊임없이 무너질 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런 어머니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절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로는 ‘그’를 성찰하게 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향길이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며 낙천적인 것은 아니다. ② 고향을 찾아가지 않은 삶이 현실과 타협한 삶도 아니거니와, 그는 두 번의 실업자 신세를 맞이하고 있고, 5년 동안의 공백기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④ 고향에 도착하여 어머니가 사라진 이유는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라진 고향 꼬두메를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열망이 어머니로 하여금 사라지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사표를 제출한 행동이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절망적인 심정에 쌓여 있다. 실직도 실직이러니와 과거에는 이와 같이 무너질 때마다 자신을 잡아주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또한 제정신이 아니기에 기댈 곳조차 없기 때문이다.

30.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꼬두메는 서술자의 고향이며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현재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꼬두메를 찾아 눈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서술자는 과거 그곳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가난한 식구들’이란 표현을 썼다. 여기에서 꼬두메에서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④

31. 어휘·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의 햇별은 음지 식물로 비유된 서술자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시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32-35] 사회,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광고에서 유명인 모델이 중복 출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들어 바람직한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모델은 상품의 특성에 맞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난다고 했다. 유명인의 중복 출현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맞는 한 상품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나올 때라고 한정한다. 그렇기에 광고를 함에 있어 모델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제]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와 바람직한 광고 모델 선정의 필요성

32. 비판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출발점은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는 어떻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가며 유명인이 광고에 중복 출현하면 광고 효과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모델 A는 전문성과 신뢰성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기에 이 모델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이 성능이나 효능이 중시되는 상품의 광고에 적합하다. 반면 모델 B는 친근성과 매력성이 높기에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의 상품 광고에 적합하다. ③과 같이 모델 B가 서로 다른 성향의 두 광고에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치약 광고에서는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모델 A가 카메라 광고에 적절함을 알 수 있고, 5문단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 모델이 한 상품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모델의 중복 출연은 이미지를 분산시켜 기대만큼의 광고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34. 비판적 사고(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아무리 유명한 모델이라도 여러 상품에 중복 출연을 하면 광고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유명인이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 출연을 했는데도 광고 효과가 있었다는 반증의 사례를 들면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체에 따른 광고 효과의 언급은 없었다. ②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이 문제의 쟁점이지만, 광고 횟수는 쟁점이 아니다. ③ 유명인 모델의 이미지 변화가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④ 일반인이 광고에 등장하는 내용 역시 글의 핵심 주장과 아무 연관이 없다.

35.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기다.’란 의미이다. ③ ‘어떠한 물건이 발견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흐르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⑤ ‘-속에서 바깥으로 솟아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36-38] 기술, ‘엔진의 운행 상태에 따른 자동차의 연비’

지문해설 : 자동차의 연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엔진의 동력에 대해 설명하고,

자동차의 연비가 달라지는 엔진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엔진의 동력이 흡기, 압력, 폭발, 배기의 4행정을 거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연료의 혼합비에 따라 엔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대조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엔진 조건

36.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엔진의 동력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엔진의 동력은 폭발 행정에서 생긴다고 했다. 즉,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혼합 기체가 폭발하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높은 이유는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가스가 배출되는 단계는 배기 행정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흡기(상사점→하사점), 압축(하사점→상사점), 폭발(상사점→하사점), 배기(하사점→상사점)이므로 4행정이 완료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셈이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④ 혼합 기체의 흡입은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배기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⑤ 4문단의 2행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37. 추론적 사고(그림 자료에의 적용)

정답해설 :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라 했다. ㉠은 압축 행정이며 여기에서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와 ㉢이다. 그런데 압축 행정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가 압축되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점차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에서 폭발을 하며 이는 ㉣에까지 이어진다. 왜냐하면 폭발 행정에서는 폭발 이후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밀리며 동력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후의 ㉣는 바로 배기 행정이다. 그리고 다시 공기를 흡입하는 흡기 행정이 바로 ㉤이다.

38.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해발 고도 5,000미터의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했다. 즉, 엔진의 실린더 외부 기압이 낮아진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는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다. 이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

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흡기 행정에서 외부 기압이 낮기에 공기의 흡입량이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연료는 정상적으로 분사될 것이기에 혼합 기체의 비율에서는 연료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3문단의 끝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가 부족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적정 혼합비를 벗어나기에 에너지 효율이 낮아진다. ③ 배기 행정에서 외부 기압이 낮기에 오히려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는 빨라진다.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되는 경우는 혼합 기체에 연료의 비율이 낮아서 공기가 과잉일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기압이 해수면 인접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⑤ 에너지 출력이 가장 큰 경우는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할 때이다.

[39-43] 시가 복합(고전시가 + 고전수필)

(가) 작자 미상,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두꺼비, 백송골, 파리 등을 의인화하여 당대 현실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관찰자 시점을 취하여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포착하여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힘 있는 자에게 굽실거리면서 힘없는 자 위에 군림하며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수령이나 아전들의 행태를 비꼬고 있다.

[주제] 특권층의 허장성세(虛張聲勢) 비판

(나) 허전, ‘고공가(雇工歌)’

작품해설 :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집착해 국가 일에 소홀한 관리들을 계으른 머슴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가가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신하들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훈계하듯 비판함으로써 깨달음을 유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임진왜란 전후 백관들의 탐욕과 정치적 무능 비판

(다) 이옥, ‘어부(魚賦)’

작품해설 :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물 속 물고기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군주 - 신하 - 아전 - 백성들’의 관계를 ‘용 - 고래 등의 큰 물고기 - 메기 등의 중간 물고기 - 작은 물고기’에 비유하여 올바른 국가 경영의 도를 밝히고 있다. 작가는 이 글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즉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징계해야 백성이 살고, 그래야 군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올바른 국가 경영의 도

39.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파리(힘없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자신보다 강자인 백송골(고위 관리)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터비(중간 관리)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몰락한 집안(위기에 처한 국가)을 일으킬 생각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고 있는 고공(나라의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다)는 국가의 도를 생각지 않고 작은 물고기(힘없는 백성)를 괴롭히는 큰 물고기(관리)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세 작품 모두 풍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으나 고사(故事)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는 도적들에 의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다) 또한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혀 국가의 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⑤ (가)는 파리를 물고 있다가 백송골을 발견하고 도망가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 두터비의 모습에서 해학이 보인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해학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

40.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다)의 ‘비’는 가뭄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에 군주가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 정도로 볼 수 있다. ㉠ 역시 고공들에게 그들의 기본적 삶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이기에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집과 더불어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다. ② ㉢은 ‘거친 울며’와 대조되는 의미를 지닌 ‘최상의 먹을 것’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은 국가의 살림살이로 의미를 확대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은 화자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꼬아낸 결과물이다.

41.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두터비 : 파리 : 백송골’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보면 ‘파리 < 두터비 < 백송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⑤에서 ‘쥐 < 솔개 < 봉황’이다. ‘솔개 : 쥐 : 봉황’의 배열 관계를 보면 (가)와 일치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닭’과 ‘개’는 화자가 기르고 있는 동물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에 동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며, ‘백로’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다. ‘너’는 바로 ‘백로’를 지칭하고 있다. ③ ‘나비’와 ‘범나비’는 동등한 관계로 화자는 이들과 함께 지향하는 곳인 ‘청산’에 가고자 한다. ‘꽃’은 ‘청산’에 가는 중간에 설 수 있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화자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는 ‘봉황’인데, 실제로 얻은 결과는 바로 ‘오작’이다. 이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이다. 그렇기에 ‘동자’에게 명을 내리고 있다.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나)의 노래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란 후의 국가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가 고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라 재건에 소홀한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나’는 ‘고공’이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행동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화자는 ‘고공’이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나라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관료 사회의 불신을 이끌어 낸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4행에 나타난 ‘고공’들의 행동은 조정의 불화를 표현한 것이다.
③ ‘옛그제 왔던 도적 ~ 옷 밤만 다투느냐’에서 엿볼 수 있다.

43.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라면 바로 글쓴이의 입장을 지지하는 신하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글쓴이의 생각과 다른 것을 찾으려는 단순한 문제이다. 글쓴이는 국가의 도를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이들을 해치는 못된 관리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백성이 살고, 그들이 살아야 군주 노릇을 하며, 그래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

[44-46] 언어, ‘한글 창제 후 문자 생활사에서 나타난 변화’

지문해설 :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면서, 예상 독자에 따라 표기 방식을 달리한 책들이 간행되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각 표기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글 창제 후 독자를 고려한 다양한 표기 방식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의 전반부에서 이 책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였기에 한자를 음의 노출 없이 원문으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용비어천가’가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였지만 ‘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③ 3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

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서 ‘두시언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⑤ 마지막 문장에서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에 한글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45. 추론적 사고(원리 적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 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 그대로 표기한 ‘런던(London)’이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의 병행을 하였고, <보기>의 표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기에 잘못된 것이다. ④, ⑤ 알파벳을 한글과 같이 음절 단위로 끊어 적고 있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46. 추론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기>의 주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영어의 ‘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일’로 적도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 내용을 따르면, ‘퐁’표기는 국어에 없는 음이다. 여기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면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호들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표기하는 것이 국어의 문자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표기에 적응해야 하고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음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⑤ 새로운 음으로 영어를 표기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음은 아무래도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47-5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낙성비룡'

작품해설 : 어려서 부모가 죽고 고아로 자란 주인공 이경모가 구원자를 만나고 다시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는 과란만장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줄거리나 주제, 표현 형식에 있어 다른 영웅 소설과 비교할 때 독창적인 점은 없지만, 섬세한 인물 성격 묘사와 순 우리말 표현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인공이 '잠꾸러기'에다 '떡보'로 나타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소대성전'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주인공의 능력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적 재능이라기보다는 인물의 뛰어난 성품과 스스로의 학업에의 정진 등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떡보에 잠꾸러기인 이경모의 고난 극복과 승리

47.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장면은 태수인 설인수와 원수인 경작(경모)이 만나 회포를 푸는 장면이다. 계급으로는 태수가 원수를 모시는 형편이지만, 그들은 계급 이전에 동서지간이다. 둘 사이에 이러한 인연이 밝혀지면서 극존칭을 쓰던 설인수의 말이 편해지고 둘은 사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의 안부와 처의 안부를 물으며 흉도 보고, 위협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인물들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원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주로 대화를 통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들이 조롱하듯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일부 있으나 이는 갈등이 아니라 둘이 허물없는 사이임을 보여준다.

48. 사실적 사고(서사 구조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장면에서 설 태수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원수의 일을 전한 후 돌아간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감복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장인은 이원수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 태수는 원수에게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라 했고, 이에 대해 원수는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라 했다. 이로 보아 이원수가 한때 잠을 많이 잤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설 태수와 이원수의 대화를 통해 이원수는 부인을 두고 집을 나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했을 뿐,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원수가 되었는지의 과정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 사실적 사고(말하기에 나타난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설 태수는 원수가 약한 부인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11년 동안 편지 한 번 없이 보낸 행동에 대해 어둡고 무심하다며 질타를 하고 있다. 그러

므로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수의 넓은 덕을 추앙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일 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⑤ 나는 비록 벼슬은 낮지만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약한 처제를 홀로 남겨두고 소식조차 없었던 원수의 행동을 탓하고 있는 말에서 알 수 있다.

50. 어휘·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환골탈태(換骨奪胎)’란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이른다. 원수는 11년 전 소 먹이던 목동이었으나, 현재는 한 나라의 원수가 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경모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도로 가는 길에 부모 묘소가 있는 고향에 들르겠다고 했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 이해에 대하여 협력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③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른다.